

한경훈 / 2월 / 기초 GS+ / 12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34545	17.5	8.5	0	0	26	1	1.35%	5	74
535140	17	8.5	0	0	25.5	2	2.70%	4	
536935	16.5	8.5	0	0	25	3	4.05%	5	
535322	15.5	8.5	0	0	24	4	5.41%	4	
535579	15	9	0	0	24	4	5.41%	6	
535192	14	9.5	0	0	23.5	6	8.11%	3	
535412	14.5	9	0	0	23.5	6	8.11%	4	
535528	18	5.5	0	0	23.5	6	8.11%	4	
535602	14.5	8.5	0	0	23	9	12.16%	4	
535211	13.5	9	0	0	22.5	10	13.51%	5	
535329	14	8.5	0	0	22.5	10	13.51%	4	
535461	13	9.5	0	0	22.5	10	13.51%	5	
535513	14.5	8	0	0	22.5	10	13.51%	5	
535183	15.5	6	0	0	21.5	14	18.92%	5	
535331	13	8.5	0	0	21.5	14	18.92%	5	
535345	13.5	8	0	0	21.5	14	18.92%	4	
535656	16	5.5	0	0	21.5	14	18.92%	4	
535244	13	8	0	0	21	18	24.32%	5	
535278	12.5	8.5	0	0	21	18	24.32%	5	
535310	13	8	0	0	21	18	24.32%	4	
535617	13.5	7.5	0	0	21	18	24.32%	5	
535994	14.5	6.5	0	0	21	18	24.32%	5	
535221	12.5	8	0	0	20.5	23	31.08%	5	
535333	14	6.5	0	0	20.5	23	31.08%	3	
536181	13	7.5	0	0	20.5	23	31.08%	5	
534775	18	2	0	0	20	26	35.14%	5	
535316	14.5	5.5	0	0	20	26	35.14%	6	
535539	11.5	8.5	0	0	20	26	35.14%	5	
535882	14	6	0	0	20	26	35.14%	5	
536249	13	7	0	0	20	26	35.14%	5	
534516	14.5	5	0	0	19.5	31	41.89%	4	
535527	13.5	6	0	0	19.5	31	41.89%	5	
535464	11.5	7.5	0	0	19	33	44.59%	4	
535540	11	8	0	0	19	33	44.59%	4	
536160	10.5	8.5	0	0	19	33	44.59%	5	
535596	10.5	8.5	0	0	19	33	44.59%	4	
535215	10	8.5	0	0	18.5	37	50.00%	6	
535321	11	7.5	0	0	18.5	37	50.00%	6	
535253	10.5	7.5	0	0	18	39	52.70%	3	
535319	13	5	0	0	18	39	52.70%	4	
535462	10	8	0	0	18	39	52.70%	4	
535465	11	7	0	0	18	39	52.70%	4	
535524	11.5	6	0	0	17.5	43	58.11%	4	
537128	17.5	0	0	0	17.5	43	58.11%	6	
535239	10.5	6.5	0	0	17	45	60.81%	3	
535368	12	5	0	0	17	45	60.81%	4	
535960	12.5	4.5	0	0	17	45	60.81%	4	
535258	13.5	3	0	0	16.5	48	64.86%	4	
535973	12.5	4	0	0	16.5	48	64.86%	3	
536112	12.5	4	0	0	16.5	48	64.86%	5	
536037	11.5	5	0	0	16.5	48	64.86%	3	
534964	13.5	2	0	0	15.5	52	70.27%	5	
535217	9.5	6	0	0	15.5	52	70.27%	4	
535505	15.5	0	0	0	15.5	52	70.27%	4	
535968	12	3	0	0	15	55	74.32%	5	
535661	14.5	0	0	0	14.5	56	75.68%	5	
535161	9	5	0	0	14	57	77.03%	4	
536093	10.5	3.5	0	0	14	57	77.03%	5	
535651	9.5	4	0	0	13.5	59	79.73%	5	
535255	10.5	2.5	0	0	13	60	81.08%	4	
535647	10	3	0	0	13	60	81.08%	4	
536226	12.5	0	0	0	12.5	62	83.78%	4	

535454	10	0	0	0	10	63	85.14%	4
535511	10	0	0	0	10	63	85.14%	4
538047	6	3.5	0	0	9.5	65	87.84%	3
535311	6.5	2.5	0	0	9	66	89.19%	5
536141	9	0	0	0	9	66	89.19%	4
535223	8.5	0	0	0	8.5	68	91.89%	5
535325	8.5	0	0	0	8.5	68	91.89%	4
535348	5.5	2.5	0	0	8	70	94.59%	5
536006	8	0	0	0	8	70	94.59%	4
536108	8	0	0	0	8	70	94.59%	3
535459	7.5	0	0	0	7.5	73	98.65%	4
535742	6	0	0	0	6	74	100.00%	4

한경훈/2월/기초GS+/12회/1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설문 1, 2의 경우 다들 잘 암기하고 계실 단문 문제였고, 설문 3도 판례의 사실 관계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으므로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사안 포섭보다는 판례와 조문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상표권 공유의 법적성질 판례에 키워드를 잘 포함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상표법상 취급의 경우 답안에 없더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추가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제124조 2항, 3항을 헛갈린 분들이 계셨는데, 피청구인의 경우 2항에 해당함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문제점에서 심판청구와 같은 규정이 없음을 언급한 후에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심결취소소송 판례는 중요하므로 논거를 빠짐없이 암기해주셔야 합니다.</p> <p>제162조 2항을 언급한 답안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조문을 간단히 포섭함으로써 다른 답안과의 차이점을 줄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3) 설문 3

목차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설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판례를 작성했더라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3. 소결

문능바가 까다롭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조문 병기나 판례 표시를 누락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작성을 해주셔야 답안 인상이 좋아집니다. 또한, 상표법에 있어서는 학설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학설은 이름만 작성하거나 간단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훈/2월/기초GS+/12회/2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단문, 판례를 물어보는 설문으로 이루어진 문제였습니다.</p> <p>설문(1)은 비교적 간단했을 것 같고, 설문(2)도 판례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甲이 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시기적 요건만을 검토해 주셨는데, 주체적 요건도 함께 포섭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 2</p> <p>선결적으로 조문의 의의와 취지를 작성하고, 메인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배점이 비교적 크므로 사안 포섭 또한 풍부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p> <p>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포섭을 할 때 키워드를 따옴표로 작성할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은 설문이었기에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아직 4월이기에 암기가 덜 되어 단문 문제에 자신 없어 하실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단문 문제는 다들 비슷하게 작성하고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p> <p>따라서 단문을 완벽하게 쓰려고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른 설문에 더 시간을 쓸 때 더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이번 주도 답안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I~~ 12号(1)

1. 2022 10월 30일 금정축음

생활의 여러 측면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환경임으로, 이 생활은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등록권" 판단시 고려된다.

2. 站 902 10% 20 个 个 个 个 个

일반 소비자들의 보통형, 기능적 디자인의 제품 사용은
위해, 보통형-기능적 디자인으로 보통의 사용하는 방법인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오리지 미치지 않는다

3. "문화로 사람을 행방의 토서한 토장"의 의미

① 1차 100원 100원 등 100원 이므로 필자의 구성태양은
기초적인 판단이다. ② 1차 90원 100원 200원
판단, 그러므로 필자의 구성태양은 80원 이나
실제 사용태양은 그러하여 판단한다.

(Tool)

II 2월(2)

1. 문화체육관광부 의의발 취지 (5월1092)

수업시간에 반장을 위임, 수업시간 들은, 지기의 수업시간
관리. 그리고 정회 반장에 대해 정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부정경리.

무문류무한 등록상표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바, 무의 용어 인정된다. 그의 행위가 무의상표권 침해인지를 무의 상표의 유사상표 사용인지, 상품적사용인지, 혼동계한사유가 있는지로 가인의 검토한다.

3. 무상표의 유사성 - 23

(1) 유사판정 방법 (제1항)

이동상표가 유사한지는 외관·청음·관능을 전체적·기능적·이적적으로 종합하여 주의자들에게 혼동될만한 것인지 여부가 있는지 판단한다.

(2) 무관한 법리 (제1항)

적절한 전체관행을 위하기위해, 상표구성부분 중 독립하여 존재가능성은 식별가능부분, 즉 무의가 있는 경우 무부를 대비하여 인정한다.

(3) 무부개량기준 (제1항)

상표구성부분 중 주지·지명부분, 강한인상은 주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상대적 식별력 및 다른부분과의 개성정도, 거리화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부가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4) 사안

1) 무상표의 무부 - 인파리니마.

무상표는 명문과 한글의 개성상표로서 명문에 대한

응여이 있는 경우 국내인만수자들은 그 응여인 한글로
 논형한것이므로 특정응의 명은 '인피리나'이다

2) 특정응의 명 - BASIC ELITE

특정응은 도안화되어 있고, 양말 모양의 도안상표의
 상표상징을 각양한다 있는 것이들이 내역되어
 있고, 국내에 가장 큰 회사로 'BASIC ELITE'라고
 되어있다. 'BASIC ELITE' 부분이 상표상징 식별력이
 강하고, 수료자들에게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되므로, 특정응의 명은 'BASIC ELITE'이다

3) 대비판적 - 비유사

특정응의 명 '인피리나'와 특정응의 명 'BASIC ELITE'는
 외관·청보·인상이 달라 수료자들에게 출처표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4. 특정응이 상표상징 사용인지 - 사용권

(1) 상표상징 사용 판단 방법 (최소)

상표상징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표상징관계, 사용태양
 주지제명도, 사용자의 의도와 행위등을 종합하여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판단한다.

(2) 사용의 명

같은 양말에·도안화된 상표를 부착하면서.

'BASIC ELITE'라는 표지를 출처표시 기능이 발휘되도록
 사용하며 상표상징 사용이 인정된다.



5. 제9조 1항 2단 특허제반에 적용 가능 - 적극

(1) 제9조 1항 2단 의미 및 취지.

기술적 표지의 자유이용 방해를 위해 기술적 표지를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표시하는 표지에는 상표권 본래가 제한
되어 상표권 본래가 미치지 않는다.

(2) 일부에만 한정 제한 가능한지 (선택)

상표구성요소이 분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인식 가능한 부분에만 한정 제한을
적용할 수는 있다.

(3) 기술적 표지 판단 방법 (선택)

기술적 표지인지는 그 표지가 지니는 관념, 사용 상품
과의 관계, 게재물 자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킬 수
있는 경우 기술적 표지에 해당한다.

(4) 사례.

무신사의 동아출판사 부문인 'INTARSIA'는 국내 유명자의
영미문집도판을 고려한데, 그 자체로는 양말라 관
련된 구체적 의미로 직감시키지 않는다. 다만,
사용대상을 고려해보면 양말의 성질을 직감시키
는 '신사, SNEAKERS, 아티, 고급기품생활'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일반수용자들은 'INTARSIA'
가 양말의 성격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2상표의 'JIVTARSIA' 부분은 甲상표와
경이 제한되어 혼자 배치 않는다.

6. 상표의 형태-기각 판례

2상표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甲상표와
비교, 甲상표와 동일하거나 부분에 甲상표의 본질이
제한되어, 2상표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음.
특109호 조항은 기각판례임 것이다.

4.5. 판례

1. 특110호 조항 위반 여부

권리를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으로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은 면제해준다

2. 혼동가능성 추정 거부 (특111호)

특110호 조항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이지, 혼동가능
까지 추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표권과 스스로가
사용하고 있고, 실제 영업상 혼동가능하였으므로
입증해야 한다.

3. 동등상표 사용 범위 (특112호)

동등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는지 입증한
때에는, 동등상표와 사회적 동일성 동일한 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지 유사범위 사용은

안정된 것은 아니다.

4. 甲의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음.

甲은 동식상표를 지정상품인 '변제양만'에 사용하여
 양고 유사상품이란 사용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명칭상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110조

· 3항을 적용할 수 없다.

~~甲의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11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상표와 동일·유사 상품을 사용하여
 침해행위 있는~~

5. 소멸의 해지 - 기각판결.

甲상표와 동일·유사 상품을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양고'
 에 사용하여 침해행위 있는 자은 그해지 후징
 되나 (위1항), 甲은 자신의 손해발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판결이 예상된다. "결"

[문제-2]

I. 상표법

1. 제정사형구

(1) 의의 및 취지 (법 55조 제 2)

권리 발생을 위하여 제정제정받은 것은 제정사형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① 제정제정받은 자가 ② 제정제정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부러 3개월 이내 ③ 제정제정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제정사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절차 및 효과

제정제정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정서를 제출 하여
제정사형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사형 청구는 의정서
제정제정받은 취조가 주된다. 제정사형은 취조가
주다.

2. 제정제정받은 상표

(1) 의의 및 취지 (법 116조)

상표의 권리 제정제정 받은 것이 제정제정받은 상표
제정 받은 수 있다.

(2) 요건

① 제정제정받은 자가 ② 제정제정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부러 3개월
이내 ③ 제정제정받은 제정제정 받은 상표 제정제정 받은 수 있다.



때에 허락한다 한다.

(3) 특허권 행사

상업적 목적으로 특허 허락한다 하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특허 절차 방법과 유의사항 - 계속

①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③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④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II. 실용(2)

1. 실용(2)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⑤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2. 실용(2) (제 55조 제 1항) -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①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③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3. 실용(2) (제 55조 제 1항) - 거액의 돈을 지불한 후 상판은

④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⑤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⑥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은 후 특허청에서 판권을 받을 수 있다.

1.700이 넘는 것, 상정된 것까지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4. 서론

① B와 동인국사상대로 상정된 것까지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② 상정된 것까지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3.700이 넘는 것까지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5. 결론에 따라 위증 - 위증

3.700이 넘는 것까지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 위증으로 하여 유죄로 —

[문제-1]

1. 설명 (1)

1. 특허 제 33조 제 1항 3호 의의. 특허

상표의 성질 등을 보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각 대상품속별로 및 공익상 독점적응성이
 없기에 등록을 할 수 없다.

2. 특허 제 190조 제 1항 2호 의의. 특허

보충명칭. 기술적 표장의 과다사용 필요성 고려하여 지정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보충명칭. 기술적 표장을 보충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비교

(1) 관련 심사기준.

특허 제 33조 제 1항 3호는 의관상 거성태양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허 제 190조 제 1항 2호는 거성태양 뿐만 아니라 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태양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2) 판단 방법 취지

표장의 관련, 사용상표. 지정상표와의 관계, 기재문장 등을
 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유사한 판단기준 있다.



II 실용(2)

1. 손해배상 청구 의미. 취지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제109조).

2. 침해 여부

(1) 경쟁 정리

甲은 유효하게 등록 중인 상표권의 권리자로서, T은 그 지장상표 '먼제 양말'과 동일범위에 내인 '양말'에 대하여 T 상표를 사용 중이어서 이차 상표의 유사여부, 혼란의 위험 여부 살핀다.

(2) 상표 유사 여부 - 정작

1) 일반인의 취지

상표의 외관. 음성. 관념을 전체적. 개별적. 이성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원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2) 사안

甲 상표 구성은 "INTARSIA"라 그 한글음역인 "인타르시아"로 구성되는데 그 중 영자부분을 T 상표에서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구성이 추가되어 있다는 생각은 지어 있으나 "INTARSIA" 부분의 외관. 음성. 관념 모두 유사하여 양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원인 염려 있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3) 표준제한 어휘 - 적격

1) 기동적 표장의 자체적 사용대양 고려와 취지

일반수요자가 해당 부분의 자체적 의미를 직감하리라는 뜻하더라도, 사용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기동적 표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 직용될 수 있다고 한다.

2) 결합상표 중 일부직용 가부

'취지'는 '같은 대상표장이 결합표장이면, 그 전체 별반 다르지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등록제9021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분에 상표권 표장을 한 비전다고 한다'

3) 사안

① 'INTARSIA'는 '상강세공, 삽입목의 보라 나타내는 편성물의 편성방법' 또는 '그 분양, 패턴'을 의미하는 기동 용어로서 그 사용상표인 '양말'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동적 표장에 해당한다.

② 다만, 이는 정물적 기동 용어로서, 국내 패러사건에도 수차례 일지 많아, 두원자에게 양말 관련한 자체적 의미로서는 직감되지 않는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i) 'BASIC ELLE'라고 하는 비동 높은 부분의 다른 상표로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점, ii) 'INTARSIA'가 사용된 모양이 그 비동이 작은 점이고, 양말 관련 다른 기동적 표장을



인 '신사, SNEAKERS, 이태리 고급기계장수용' 등의 사이키베
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도원에게 기
적 표장 등 하나로써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④ 나아가, T 사용표장은 정압표장인데 'INTARSIA' 부분은
분리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⑤ T 사용상표의 'INTARSIA'는 도원자가 자체적 의미는 직감할
수 없다해도 '기동적 표장'임은 직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 안 미친다.

Good

(4) 소결

T의 사용표장은 특이 등록상표의 권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해 아니다.

3. 결론의 해결

특히 T에 대한 청해배상액은 특이 등록상표를 사용 중이지만
T의 비청해 사용으로 인해 기각판결 내려질 것이다.

II. 결론(가)

~~1. 특허배상액과 공동에서 특허 배상액 증명책임~~

~~2. 특허는 특허 제 110조 3항은 특허~~

1. 특허 제 110조 3항 의의.

특허배상액까지, 청해자의 청해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경우,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청해액으로 추정한다

2. 침해 여부

또한 지정상품과 동일방위인 '양말'에 등록상표 등 권리부호인 'INTARSIA'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정 보이지 않아 침해이다.

3. 손해 발생 여부

(1) 증명책임 관련

判例는 특허제109조 제4항은 손해액 입증 곤란을 감안한 추정 규정을 밝히고, 상품권과의 손해 발생까지 추정하는 예외라 볼 수는 없기 상품권과 그로 인하여 등록상표 사용하고 있는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액을 추정.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2) 유사방위 사용시 취급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제 3의 사외상품상 이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전적으로 사용할 때를 말하며, 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안

甲은 甲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제양말과 유사한 '양말'에 활용 중인 바, 이는 동일방위 사용이 아니기에 등록상표 사용한 것 아니므로 손해 발생도 증명되지 않는다.

4. 실용의 해결

甲의 손해 발생 사실 미증으로, 증명책임이 甲에게 있어 손해 발생 인정되지 않고 미증으로 바 기각 판결 할 것이다.



[문제-2]

I. 설문 (1)

1. 대립사각주

(1) ~~어리~~. ⁷¹²¹

거절 결정 받은 자는 재심사정자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재심사정 및 불응인 보은. 122의 테완 결과이다(기초 제332의2)

(2) 호전 . 절차

1) ~~211123~~

과장끼리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

2) $\sqrt{17172}$

거절할 경우 승합 장난감은 날뚱터 개개원 이내에서 할수있다.

3) ገንዘብ.

2. 기능상동. 상동 보장 : 아예 의전시 제철한 수 있고.

대답자에게 이런 거절절차가 있거나 거절절차 보복심판이
있어야 한다.

(3) 하

가장 먼저 시작된다. 다만,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가장 먼저
시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된다. 재빨리 움직인다.

2. 리얼리얼리얼 볼볼볼볼 싱싱싱

(1) 리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상위에 위치하는 질과화(질수 11162)

[illegible]

(가) 보라 색으로 심사하기 위한 작성과 함께, 심사청구서 제출한다.

3. 특이성을 두는지

기술적성을 받았고, 그 등본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안 지냈으므로
재심사 청구 또는 기술적성 불충족판 청구 모두 가능하다.

4. 실문(2)

1. 기술적성 불충족판에 대한 의결서 제출 등 규정

특제 11232는 특제 552를 인용하므로, 심사관은 상관
청구인에게 미리 기술이해를 위하여 의결서를 발령
기회 부여해야 한다.

2. 특제 552 및 특제 1232의 처리 위치

출원인, 상관청구인의 필차적 처리 보충, 심사. 상관의 작성
신용 대리를 위한 공익상 요구에 따른 강행규정이다

3. 기술적성의 이해와 다른 기술이해의 제정

처리는 심사단계에서 미리 기술이해를 통리한 사유라도, 그 사유
기술적성에서 이해로 상리 양상다면, 상관 단계에서
상관청구인이 기술적성으로 의결 제출 등의 기회 부여 가능
다른 특정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상관의 이유로 하기

이때서는 다시 기판이해 필요해야 한다는 한다.

4. 결론의 해결

① 심결의 이유가 된 사례는 지정상용 표 'X'에 대하여 특허제4조 제1항7호의 기판이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심사단계에서 기판이해 필요성인 것 일지만 기판판정에서의 이대로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본재심을 냈지만 기판 소라고 판단할 것이고, 해당 사례를 기판으로 하는 기판이해에 대해서는 실판에서의 이유로 상리 양은 등 실질적으로 甲에게 해당 사례에 대한 타겟제출 및 본재의 기판이 부러 되었다는 특별한 사실도 있다.

③ 결국 심사단계에서 甲에게 '기판이해와 다른 기판이해'로서 종극하고 타겟제출 기판이 부러져야 하는데 본재로 심결의 이유는 들지 기판판정한 것은 타당하다. <결>

<이하 미백>